

업계 단신



올텍

태국에 3번째 생명과학 센터 건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자, 올텍은 태국, 방콕에 3번째 생명과학 센터를 건립했다.



지난 9월 BIOTEC (National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의 이사인 Dr. Morakot Tanticharoen, 올텍의 연구개발 이사 Dr. Karl Dawson 그리고 올텍 태국의 General Manager인 Dr. Richard Chong 및 주요 customer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오픈행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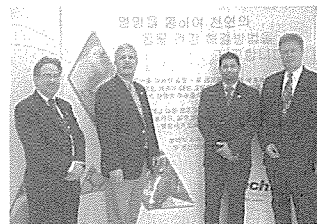
올텍의 사장인 라이언스 박사는 "태국의 이 생명과학 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분야에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생명과학센터는 고상발효 효소의 사용 및 적용을 통해 부산물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기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그램을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활동, 품질 관리 및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텍의 생명과학 센터는 미국과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다.

■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에서 심포지엄 개최

"뉴트리제노믹스의 미래"



올텍은 9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에서 '뉴트리제노믹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에서 개최된 올텍의 22회 국제 사료산업 심포지엄의 주제를 반영한 것으로, 뉴트리제노믹스의 축산업 분야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계적 유명 연사들이 가축의 사육성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영양 기술, 특히 광물질 영양 및 마이크로톡신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테크니컬 매니저인 D'Souza박사의 환영인사로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올텍의 심포지엄의 시작됐다. 그는 뉴트리제노믹스와 수산 연구센터를 포함한 올텍의 개발 프로젝트 및 연구 발전, 그리고 최근 태국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생명과학 센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호주 농림부의 Mullan박사는 '광물질 영양-양돈 산업의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양돈에게 필요한 광물질 영양에 대한 연구는 양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점 및 변화에는 다소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태 광물질을 뛰어넘는 바이오플렉스 광물질과 같은 유기태 광물질의 효과적인 개선기능을 강조했다.

켈프 대학의 Smith 교수는 마이크로톡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아플라톡신 및 푸사리움 독소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축종에 따른 마이크로톡신의 감수성에(양계보다 말과 양돈에서 더 감염되기 쉬움) 대해 강조했다.

올텍의 Elliott박사는 축우에 미치는 셀레늄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의 축우와 1960년대 축우 사이의 생산량 차이가 매우 큰 만큼, 광물질 첨가 또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셀레늄 원료 별로 진행된 전 세계 많은 실험을 통해 셀플렉스가 축우의 셀레늄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증명했다.

올텍의 글로벌 연구개발 이사인 Dawson 교수는 기능성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을 제공하는지 설명

했다. 이와함께 이 새로운 기술이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셀플렉스와 같은 단일 영양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순회 강연 개최

올텍이 제20회 아시아-태평양 순회 강연을 개최한다.

올해는 올텍의 제22회 국제 사료 산업 심포지엄의 주제인 'Delivering on the Nutrigenomics Promise'의 테마와 연관되는 'Feeding the Gene for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라는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 강연은 10월 30일 일본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르네상스 호텔, 11월 17일 인도에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순회 강연의 연사로는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올텍의 사장)와 더불어 올텍의 우수한 연구원인 리처드 머피 박사 (올텍 아일랜드 연구 센터), 캄 모란 박사 (올텍 미국의 미생물 연구), 키스 필러 박사 (올텍 아태 생명공학센터)로, 현재 국제 사료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및 양계, 양돈, 축우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전화 : 02-598-1311

카길코리아주식회사

카길사료 추계 양돈세미나
-제주지역

카길코리아주식회사(사장 정학상) 제23지구(영

업계 단신



업이사 양길섭)는 9월 26일 제주 금강산 콘도에서 제주지역 양돈인 60여명을 초청해 카길사료 추계 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카길사료 권오천 부장과 카길 제주사업소 고석용 소장의 개회로 시작해 김병용 양돈특판부장의 환절기 관리와 질병을 주제로 최근 시장상황과 제주지역 폐사율 증가원인 분석과 함께 환절기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지역이 최근 폐사율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집단 면역에 대한 접근 및 부적절한 예방관리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폐사율을 줄여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돈의 안정화와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관리 순으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돈 안정화 조치로는 수직 감염 차단과 적정 산차 구성 및 철저한 후보돈 관리를 통한 면역 수준 향상, 우수한 종돈 구입 등으로 환경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하며, 사양관리로는 환경 적응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기관리와 환절기 온 습도, 풍향 관리를 강조하였고, 질병 관리로는 농장 적정 규모에 맞는 사육두수 유지, 질병 유입 차단, 병원체 공격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All-in All-out, 건조, 소독, 습도조절, 전염원 차단(환돈, 구충, 구서), 역학 검사를 통한 농장 질병 컨트롤 전략을 강조하면서 카길사료 제주사업소의 서비스 조직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서 대한회계법인 송재현 회계사가 양돈장 세금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해 양돈농가에 경영정

보를 제공, 호평을 받았다.

CJ feed

친환경 벗짚 구매 약정 체결



CJ feed는 9월 27일 홍양농협 주최로 고흥 홍양농협 강당에서 '친환경 재배 벗짚 급이를 통한 최고급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고흥 양지한우회 친환경 벗짚 구매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로 양지한우회는 포두면 친환경광역시범단지 600ha(참여농가 680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벗짚을 공급받게 된다.

CJ feed관계자는 "CJ의 맞춤형 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양지한우회는 돈돈팜으로 전량 출하되고 있다"면서 "이번 체결식을 통해 2007년 우수 브랜드 인증 목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사료

홍주골 기력담 잠실 1호점 개업식 가져



곰포 대한사료(대표이사 김덕명)와 홍성서부육

계영농조합, 기공랜드가 상호협력해 생산된 홍주골 기력닭의 잠실 1호점 개업식 행사를 9월2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개최했다.

홍주골 기력닭은 대한사료의 무항생제, 무성장 촉진제 사료와 서해안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카나리 액젓의 추출물과 인삼잎을 발효시켜 먹인 닭으로 칼슘, 아미노산, DHA 등이 풍부하다. 또한 닭의 충분한 영양공급원과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장기간 시험 투여한 결과 사양성적이 우수하고 질병예방 효과가 탁월하며 그 맛과 영양면에서 우수함이 입증돼 특허를 출원한 제품이다

잠실 1호점을 통해 선보인 소금구이, 숯불양념구이, 닭곰탕 등은 별다른 양념없이도 맛있고 담백한 고기를 즐길 수 있으며 웰빙시대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다. 기력닭은 한의학적으로 우수한 인삼잎의 氣와 카나리 액젓 추출물의 고영양, 고칼슘을 공급원으로서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아 어린이 건강 식품, 수험생 기력 보강, 어르신 효도 식품 등으로 판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 단풍미인은 천하제일사료 계열사인 한우거세우 고급육 전문 유통회사인 C&C 푸드 시스템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며 2006년 9월말 농수산 홈쇼핑을 통한 판매와 홍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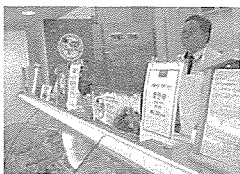
또한 KG그룹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식품전문점인 '오르페' 분당 정자동 지점에 9월7일 입점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

정읍단풍미인은 매장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한우홍보전시관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정읍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대표 정태호)은 현재 총사육규모가 8천5백두에서 1만5천두까지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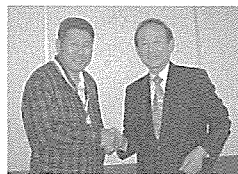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가 출범했다.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는 2003년 5월 브랜드 사업단 창립총회를 거쳐 브랜드 준비를 진행해

2006년 2월 정읍단풍미인한우 상표를 등록했다.

단사회

10월, 피드텍(주) 이수방 대표이사 우승



우리협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사회의 10월 대회에서 이수방 피드텍(주) 대표

이사가 우승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메 달: 서성호 아미바이오테크놀러지 대표
- 장타상: 권상일 달재화학(주) 대표이사 ㉮

* 귀사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문의: 02)585-2223~4 팩스: 02)588-8297
kfeedia@hanmail.net